

추모논문

한국사회조사와 함께하신 (고)박무익 회장을 기리며

The Memory of the late President Moo-ik Park of Gallup Korea
with Korea Social Survey

이 계 오^{a)}
Kay O Lee

이 글은 지난 4월 19일에 운명하신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이 한국 조사통계분야와 선거여론조사에 기여하신 업적을 살펴보고 고인의 뜻을 살려 한국조사연구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였다. 고인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예측결과를 투표 당일 18시에 정확하게 발표하여 선거여론조사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4대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여론조사에서도 정확한 예측결과를 발표하여 선거여론조사뿐 아니라 사회여론조사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1993년 비표본오차 워크숍, 제15대 대선 예측조사의 성공사례 발표와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한국갤럽학술논문상, 박사학위논문상 제정 등으로 조사방법의 연구발전에 기여하였다. 기록을 중요시했던 그는 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 대통령선거여론조사와 지방선거여론조사 등에 관련된 모든 과정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고,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 여론조사 프로그램은 역사적 기록물일 뿐 아니라 정치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대선 예측조사, 한국조사연구학회, 역사적 기록물, 정치민주화

This article was written in the sense that President Moo-ik Park of Gallup Korea, who died on April 19th, looked at the accomplishments

a)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 이계오.

E-mail: kolee@gallup.co.kr.

contributed to the Korea survey statistics and the election poll and pray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by making use of the late Park's wish.

In 1987, the results of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announced accurately at 18:00 on the day of the ballo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ion polls. In addition, in the 14th and 15th presidential election polls, we published accurate prediction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ls as well as election polls.

The announcement of the non-sampling error workshop and the success stories of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prediction survey, the support of both The award of Gallup Korea academic paper and doctoral dissertation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ies among members an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methods through.

The contents of all the processes related to the election polls, the presidential election polls, and the local election polls were published in the resource book, and the opinion polls published every friday will contribute not only to historical records but also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Key words: presidential election poll,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 historical record, political democratization

I . 들어가며

1987년 12월 16일은 제13대 대통령선거일이었다. 당일 18시 05분 경에 노태우 후보가 약 35%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예측한 뉴스가 있었고, 이를 빌미로 3김은 대통령선거의 투표와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당시의 선거법규나 정치사회적 환경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이었

으며 이는 한국 선거여론조사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4월 19일에 고인이 되신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이다.

이 글에서는 박무익 회장의 조사통계에 대한 관심과 발자취를 더듬어 회상하고 조사통계에 남긴 업적을 살펴보고, 고인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조사통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인이 우리나라 조사통계와 함께하신 활동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조사통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정리하고,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조사통계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통계에서 박무익 발자취

1. 우리나라 조사통계의 태생

우리나라 대학의 통계학 교육은 1960년대 초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이 통계학과를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교과목이나 교육내용은 수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었다. 특히 교육담당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이 수학이나 경제학이다 보니 실무활용성이 미흡했다.

1975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개설 후로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 대학 60여 곳에 전산학과 연계한 통계학과가 개설되었다. 여전히 교수진 대부분은 수학 전공자로 이론적인 내용을 주로 교육하였으나, 전산학과 접목하면서 자료분석방법 실습과 이론 병행 교육도 이루어졌다. 이는 조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 이후로는 미국 등 통계 선진국에서 응용통계를 전공한 통계학자들이 많아졌다. 여러 대학에 다양한 응용통계 분야의 교과목이 개설되면서 통계학의 실용화교육이 시작되었다. 여전히 일상생활 속으로 정착하지 못하여 지방대학의 통계학과 중 일부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으나 일부 대학은 조사방법이나 품질관리 등 특화된 교육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가 응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통계학 관련 주요 행사

1960년대 초부터 통계학을 공부한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였고 정부기관 등도 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1971년 12월 17일에 통계전문가 47인이 한국통계학회를 창립하여 전문통계인들 간의 정보공유와 유대강화에 노력하였다. 한국통계학회에서 1973년 3월에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통계학연구》 논문집을 창간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통계전문가가 양적으로 많아졌을 뿐 아니라 통계활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응용통계 분야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응용통계연구》 논문집도 198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통계학회 산하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교수들이 연구 활성화와 통계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4~5개 연구회를 설립하였는데, 조사통계분야의 원로 통계학자와 조사통계전문가 8인이 1988년 4월 3일 조사통계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조사통계연구회는 공표된 수백 여 종의 통계들을 분석하여 통계조사와 분석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통계조사의 표준절차 기준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때까지 사회여론조사 현장인 조사회사와 대학의 통계학자 간 교류가 거의 없어서 산학협력관계는 아주 미흡하였으며 1987년 제13대 대선 여론조사의 과정에도 통계학자들은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1993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조사통계연구회의 주관으로 ‘비표본오차 관리기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관심이 미미했던 통계조사의 비표본오차 특성과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통계 선진국인 미국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한국여론조사 현장에서는 비표본오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기 위해 박무익 회장을 초청하여 ‘한국여론조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또한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의 김종익 박사를 초청하여 1990년 미국인구총조사에서 과소집계에 대한 특성과 처리방법에 대한 강지도 있었다.

한국통계학회도 언론과 방송에서 활용되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호기심과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과 이회창 후보의 박빙의 경합을 0.4%포인트 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예측한 박무익 회장을 초청하여 1998년 5월 29일 춘계 통계학회(경상대학교)에서 ‘한국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선거예측조사’라는 제목으로 특별발표를 가졌다. 이때부터 대학의 통계학자들이 선거여론조사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통계학과 입시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조사통계 분야에서 보는 사회여론조사와 조사방법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고 용어도 달라서 상호 간 정보교류와 통계이용에 오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조사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 조사방법을 연구하는 유관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같이 모여 서로 소통하자는 목적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를 결성하였다. 10여 명의 관련교수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1999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때 박무익 회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뒤풀이 회합에도 참석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통계청과 한국통계학회가 공동주최로 제6회 통계의 날을 기념하여 2000년 9월 29일에 동국대학교에서 새로운 조사방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컴퓨터 보조 조사방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때도 여론조사기관의 전산화된 조사방법의 실태를 듣기 위해서 박무익 회장을 초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사회여론조사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급성장한 국력과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통계인력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통계청과 한국통계학회가 공동으로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제53차 세계통계인대회를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세계통계인대회는 세계 주요국의 통계기관과 통계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거나 당면한 과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다. 통계수준이 낮은 국가의 통계인이나 초급 통계인을 대상으로 조사통계분야의 주요 주제(표본설계, 분산분석, 비표본오차 관리 등)에 대한 튜토리얼을 운영하고 있다. 본 튜토리얼 코스의 등록비가 400불 정도여서 저개발국의 참가자들에 대한 등록비를 주최국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하였다. 이때 고인은 KOSOMAR(현 한국조사협회 KORA 전신) 회원사

의 연구원들이 튜토리얼 코스에 등록하여 통계선진국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약 500만 원의 지원금을 KOSOMAR 회원사들과 함께 지원했을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참여도 설득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 튜토리얼 코스의 강사는 J.N.K Rao, Graham Kalton, Daniel Kasprzyk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조사통계 분야 학자들이었다.

Ⅲ. 박무익 회장의 통계 분야에서 기여와 영향

박무익 회장이 우리나라 통계 분야에 남긴 업적은 많지만 역사적, 실무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사건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30년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원자료, 참고자료들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갤럽의 여론조사(1989년)>의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의사결정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제14대 및 제15대 대통령선거 예측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어떻게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고, 앞으로 선거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예측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국내상황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갤럽에서는 투표일(12월 16일) 18시 01분 국내·외 통신과 언론기관에 후보별 예측득표율을 <표 1>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1>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예측득표율

(단위: %)

후보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기타
개표결과	36.6	28.0	27.1	8.1	0.2
갤럽예측	34.4	28.7	28.0	8.4	0.5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표 1>에 주어진 후보별 예측득표율은 제주도 및 도서지역과 부재자를 제외한 전국의 유권자 2,234명을 3단 층화확률추출법으로 선정하여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모름이나 무응답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관별분석으로 대체한 후에 분석하였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으로는 ‘만일 내일이 대통령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를 사용하였다. 후보 지지율의 분포는 연령대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후보별 지지율의 연령대 분포 (단위: %, 명)

후보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기타	
개표결과	36.6	28.0	27.1	8.1	0.2	
전체	34.4	28.7	28.0	8.4	0.5	2,234
20 대	20.5	37.4	31.2	10.3	0.7	747
30 대	27.7	33.2	30.3	8.5	0.2	622
40 대	41.0	24.4	25.6	8.7	0.3	389
50 대 이상	55.3	15.4	23.4	5.5	0.4	476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조사의 실시경험을 갖춘 전국 7개 지방실사조직 및 전문조사원을 활용하고 원칙을 준수한 현장조사체계 운영과 ‘모름’과 ‘무응답자’의 보정을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등을 변인으로 하는 관별분석을 통해서 지지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의 적용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인식도와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투표 당일 18시에 예측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예측결과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정보들이 필요하여 투표 당일에 출구조사¹⁾를 계획하였다. 전국 245개 투표소를

1) 박무익(2017), 《조사인으로 살다》. 박무익회고록, 85쪽.

선정하여 각 투표소마다 20명씩을 12시까지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여 대선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출구조사에서는 성별, 연령과 투표후보만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후에 12시 10분까지 집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김영삼 28% 김대중 24% 노태우 21%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추적조사 내용과 상반되는 예측치로 나타나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었다.

더구나 선거당일에 투표자를 대상으로 전화 검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결과에서도 김대중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2가지 조사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다. 출구조사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드러났고, 지방에서는 조사원이 투표 시작 한참 뒤에 도착한 곳이 많았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조사가 진행된 200개 투표소에서는 무응답이 24%나 되었다. 만일 무응답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치에 편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특히 출구조사의 교훈은 투표소 추출보다도 투표소 현장의 조사규칙에 대한 설정과 조사원의 조사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투표소 환경과 예기치 않은 상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비표본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 예측결과

제14대 대통령선거 예측조사는 MBC(문화방송)와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1992년 12월 18일(토요일) 18시 01분 MBC에서 후보별 예측득표율을 발표하기 위해서 후보별로 예측득표율을 아래 <표 3>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3> 제14대 대통령 후보별 예측득표율

(단위: %)

후보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개표결과	42.0	33.8	16.3	6.4	1.5
갤럽예측	39.5	31.1	15.7	12.4	1.2
오차	-2.5	-2.7	-0.6	+6.0	-0.3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표 3>에 주어진 후보별 예측득표율은 전국(도서지역, 부재자 제외)의 유권자 2,250명을 3단계화확률추출법으로 선정하여 개별가구 방문면접조사로 수집한 자료에서 산출하였다. 이때 지지자를 묻는 문항에서 무응답은 20% 정도였으나 ‘모름’과 ‘무응답’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판별분석으로 대체한 후에 분석하였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으로는 ‘만일 내일이 대통령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를 사용하였으며 후보별 지지율의 연령대별 분포를 <표 4>에 정리하였다. 김영삼 후보는 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고 김대중 후보는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4〉 제14대 대선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 분포

(단위: %, 명)

후보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사례 수
개표결과	42.0	33.8	16.3	6.4	1.5	
예측전체	39.5	31.1	15.7	12.4	1.2	1,880
20 대	22.2	37.3	20.7	16.8	3.0	474
30 대	31.5	26.4	22.4	18.8	0.9	506
40 대	49.0	30.0	10.5	9.7	0.7	364
50 대 이상	55.9	30.9	8.5	4.4	0.3	536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발표금지 기간 중 김영삼 후보는 계속 1위를 차지했으며 1위와 2위간의 차이는 약간 변동이 있었으나 12월 15일 초원복집 사건(김기춘 씨가 부산지역 기관장에게 김영삼 지지를 중용)으로 김영삼 후보의 지지자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프닝도 있었다.

선거당일에 예측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MBC와 공동으로 14대 대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선거당일(12월 18일)에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다른 방송사 KBS와 SBS는 예측이 틀릴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정 이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박무익 회장은 18시 MBC에 출연하여 예측결과는 지참한 노란봉투 안에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자정에 발표할 것이라는 해명을 하였다.

사전에 실시한 가구방문면접조사 예측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선거당일에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론적으로 전화조사결과가 가구방문조사의 예측결과보다 정확하게 나타나서 이후에는 전화조사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3. 제15대 대통령선거 예측결과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치러진 제15대 대통령선거 예측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다. MBC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후보별 예측결과를 1997년 12월 18일 18시 01분 MBC에서 발표하였다.

〈표 5〉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예측득표율

(단위: %)

후보자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기타
개표결과	40.3	38.7	19.2	1.8
갤럽예측	39.9	38.9	19.7	1.5
오차	-0.4	+0.2	+0.5	-0.3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표 5〉에 주어진 후보별 예측득표율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지역별 유권자 수 비례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대별 할당)으로 선정하여 전화조사로 1997년 12월 18일 9~14시에 실시하였다. 이때 ‘모름’과 ‘무응답’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판별분석으로 대체한 후에 예측득표율을 계산하였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으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씨 등이 출마했습니다. 귀하는 이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다. 이때 후보별 지지율의 연령대별 분포를 〈표 6〉에 정리하였으며 김대중 후보는 저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고 이회창 후보는 고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표 6〉 제15대 대선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 분포

(단위: %, 명)

후보자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기타	사례 수
개표결과	40.3	38.7	19.2	1.8	
예측전체	39.9	38.9	19.7	1.5	2,500
20 대	43.2	27.9	24.6	4.3	675
30 대	43.7	34.8	20.7	0.9	708
40 대	37.2	44.1	17.8	1.0	460
50 대 이상	34.2	51.0	14.8	0.0	656

출처: 갤럽의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발표금지 기간 중 김대중 후보가 계속 1위를 차지했으며 1위와 2위 간의 차이는 변동이 많았다. 특히 IMF협상설과 국민신당 지원설로 이회창 후보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역전한 적은 없었다.

갤럽과 MBC가 공동으로 15대 대선 선거여론조사를 추진하였고, 방송 3사는 예측이 틀릴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정 이후 발표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MBC(이득렬 사장) 단독으로 선거당일(12월 18일) 18시 01분에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표 초반부터 20% 개표까지는 이회창 후보가 크게 앞서갔다. 이때 KBS와 SBS는 안심하고 있었고, MBC선거기획단은 안절부절 하였지만 25% 개표가 진행되면서 두 후보 간의 순위가 엇치락뒤치락하다가 자정 경에는 김대중 후보가 앞서기 시작하자 MBC기획단에서 축하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4. 조사통계분야와 인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박무익 회장은 1999년 11월 한국조사연구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부터 2015년 추계학술대회까지 모두 참석하였다. 관심분야의 논문 발표 내용을 경청하는 등 한국조사연구학회의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사방법의 연구와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조사분야의 기틀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1) 한국궐립학술논문상 제정

2002년 10월경에 통계조사(마케팅조사와 사회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교환하였으며, 조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사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데 뜻을 두었다.

2002년 12월말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개인 사비를 한국조사연구학회에 기부할 계획을 전해왔다. 12월 31일 전에 행정 처리를 마무리하고 한국궐립학술논문상 기금관리와 상금 운영방안으로 별도로 한국궐립학술논문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를 추천하였다. 나머지 운영위원회와 논문심사위원회는 홍두승 위원장이 학회 원로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였다.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이자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중에서 안정성과 보장성을 고려하여 천주교 운영 신용금고에 위탁하였다.

2003년 제1회 한국궐립학술논문상의 논문공모와 추천논문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70여 편을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결과 최우수논문상인 한국궐립상은 이학식 교수(홍익대 경영학)의 ‘소비관련 감성척도개발’이 선정되었고 우수논문상 6편을 선정하였다. 2003년 말에는 기부금을 추가로 쾌척하여 2004년부터는 한국궐립박사학위논문상을 신규로 제정하여 한국궐립학술논문상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2017년까지 한국궐립학술논문상은 14회를 운영하였고 한국궐립박사학위논문상은 13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응모 또는 추천된 논문은 800여 편이고, 박사학위논문은 130여 편이다. 조사방법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궐립학술논문상 공모를 염두에 두고 영향력 있는 논문집에 기고하기도 할 만큼 조사방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궐립학술상 제정

고인은 통계조사방법 분야와 같이 응용통계 분야의 연구발전뿐 아니라 통계학 이론분야의 연구발전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평소 조사방법론과 통계학 이

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통계학회 회장단의 요청으로 2006년도에 한국 통계학회에도 한국갤럽학술상을 제정하고 필요한 운영기금을 지원하였다. 매년 통계학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업적은 쌓은 교수 1인을 선정하여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이 상이 갖는 학술적 영예와 함께 예상보다 큰 액수의 상금의 영향으로 중진급 통계학 교수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교수들의 통계이론 학술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IV. 조사통계분야에서 박무익 회장 교훈

필자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기 전에 통계조사에서 표본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박무익 회장이 통계조사에서 표본설계의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때 나의 답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표본설계의 표준절차를 준수해야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나의 답변은 그 당시 대학에서 통계조사방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생각과 유사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와 같이 조사결과에 대한 진위가 바로 알려지는 상황에서는 표본조사의 전문가보다는 해당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더 필요했을 것 같다. 순간적으로 막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업에 평생을 바친 박무익 회장의 업적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많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을 언급하겠다. 고인이 간직하였던 조사통계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조사통계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1974년에 황무지처럼 아무런 경험과 정보도 없는 환경에서 조사회사 KSP(Korea Survey Polls)를 창업한 후에 조사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직접 배웠다. 뿐만 아니라 조지 갤럽이라는 조사업계의 대부에게 진심을 담아 도움을 청하여 Gallup International

의 멤버로 가입하였다.

갤럽회원이 되었기에 갤럽의 첨단조사기법을 습득하여 활용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13대 대통령선거예측을 성공적으로 얻어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내 정치상황이나 선거운동환경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으므로 모험적인 결심이 없이는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조사표설계, 표본추출 과정, 무응답자 처리기법과 예측모형 이용 등에서 갤럽 인터내셔널 회원사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실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와 실천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박무익 회장은 철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도 모범을 보였다.

특히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친선모임이나 골프운동 등을 주최하고 함께 어울렸다. 이처럼 우리는 학문적 배경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조사통계가 다양한 학문이나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의 실천이다. 실력 있는 조사전문가를 양성해야 여론조사분야가 선진화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학술논문상과 한국갤럽박사논문상을 제정하였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쾌척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좋은 표상으로 느껴진다.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사연구서와 선거자료집 등 총 33권의 조사 관련 전문서를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갤럽조사자료를 DB화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 여론조사 프로그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여론지표를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면서 정치가와 권력자에게 국민여론을 알려주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업적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도 큰 공로라고 생각한다. 빈손으로 왔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나 후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물로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 속에 간직해야 할 교훈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현재의 조사방법이나 분석기법으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문 간의 융·복합, 산업 간의 협업체계, 혁신적인 기술개발연구와 이에 적합한 조사방법이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박무익 회장이 남긴 교훈을 본받아 조사연구학회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겨주신 고 박무익 회장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 박무익(역). 1989. 《갤럽의 輿論調査》. 한국갤럽.
 박무익(역). 2002. 《갤럽의 여론조사(2차보정판)》. 한국갤럽.
 박무익. 2017. 《조사인으로 살다》. 박무익 회고록. 한국갤럽.
 한국갤럽.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 행태》

<접수 2017/06/21, 수정 2017/08/04, 게재확정 2017/08/04>